이상익 함평군수 "합리성 기반 소통행정…현안사업 구체화"

●민선8기2주년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등 국·도비 활동 성과 거둬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 조성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행정으로 현안사업 구체화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 및 비전보고회에서 2030 중장기 발전계획, 관광종합계획, 먹거리 전략 종합계획 수립 등 분야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며, 21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발표했다.

함평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소멸대응기금 206억원을 확보하는 등 최종 예산 6천억원, 본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민선 8기 2년의 주요 성과로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1조7천100억원) ▲공간개발 전략 사업(3개축) ▲인구소멸 대응 공공기관 유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청년 생산인력 유입 및 산업생태계 조성 ▲함평엑스포 공원 리뉴얼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 ▲축제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정립 ▲어촌 인프라 확충 ▲호남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준공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보훈·양육 시스템 개선 ▲재난대비 지능형 안전 시스템 등이다.

이상익 함평군수가 전남도청에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함평군 제공〉

먼저 함평군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8년 개원하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학개발부 이전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생산인력 유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함평군은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135억원), 문화유물전시관 신축(82억원), 황금박쥐전시관 이전(5억원), VR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함평엑스포공원 테마관광자원을 리뉴얼하고, 스톤델리아 리조트(52실), 베르힐 컨트리 클럽(51실)을 운영 개시, 함평천지 컨트리클럽(84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했다.

이 밖에 실내수영장(164억원), 종합스포츠타운(424억원), 야구전문타운 확장(140억원) 등 전국 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조성하며 문화·스포츠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함평군은 먹거리 전략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 먹거리 정책 전담팀 신설,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45억원 확보) 등 2028년까지 790억원을 투입해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출 전초기지로 '농업 유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24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먹거리 상품을 최초 출품하며, 국내외 농축수산물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수출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 선진화 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함평은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유치(180억원)하고 축산물 유통센터를 준공(59억원)하는 등 축산물 가공유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다"며 "앞으로의 2년이 향후 함평 발전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함평의 현안 사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해남군, 상반기 신속집행 63% 달성

소비·투자분야 145% 초과 집행…군민 체감효과 '톡톡'

해남군이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62.7% 집행률을 달성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해남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천174억원 중 3천245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510억원을 초과 집행해 목표액 대비 145%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 연속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조3천-5천억원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84.3%의 집행률을 거두는 등 2년연속 전국 군 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일하는 군정상을 확립하고 있다.

해남군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17년 66.7%에서 매년 향상돼 지난해에는 84.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본예산은 2017년 4천630억원에서 올해 8천82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해남군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마중물로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최선"

이병철 강진부군수 취임…소명의식 다짐

이병철(사진) 제31대 강진부군수가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부군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병철 신임 부군수는 "강진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부군수로 취임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다짐한다"며 "특히 강진원 군수가 그리는 미래 비전을 충실히 받들어 강진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좌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군수는 이어 "강진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농축수산업의 지속 성장, 관광 문화산업 부흥 등 살기 좋은 강진이 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구례 출신인 이 부군수는 지난 1993년 여수시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행정안전부 파견, 전남도 조직관리팀장, 행정팀장, 희망인재육성과장, 사회재난과장, 안전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이번에 강진부군수로 취임했다.

이 부군수는 순천 매산고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3대 신안해상풍력발전사協 양태성·정순남 공동위원장 취임

해상풍력 특별법 등 대외협력 강화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가 최근 제3대 공동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양태성 케이윈드파워㈜ 대표와 정순남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외부위원장으로 공동 취임했다. 취임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안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발전사업자 대표와 어업인들이 참석했다.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 취임식이 지난 1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개최된 가운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신안군 제공〉

정순남 외부위원장은 산업부 무역정책팀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공동위원장 위촉은 해상풍력 특별법, 발전허가기준 완화, 군전파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양태성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순남 외부위원장은 "산업부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는 공공주도 신안 지주식 해상풍력 8.2GW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 ㈜한화건설 등 10개 발전사로 구성됐으며, 사업자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21년 결성됐다.

/신안=양훈 기자

완도군이 최근 신복지회관에서 '신구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신구항 어촌뉴딜300 사업 4년 만에 준공

아동여성문화센터·신복지회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완도군이 총 109억원을 투입한 '신구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4년 만에 준공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금일읍 신평리 신복지회관에서 '신구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조인호 군의원,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김용식 금일읍장, 김성배 어촌뉴딜사업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의 사업 경과보고로 시작, 감사·공로패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구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 1월에 착공, 4년 만에 완료했다. 어촌뉴딜300은 어촌 혁신 성장을 돕는 어촌·어항 통합 개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9억원이 투입,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복지 어촌'을 테마로 ▲신구 아동여성문화센터 ▲세대공감 노유복합센터 ▲신복지회관 ▲섬마을 공동체 문화회관 등을 조성하고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정비 등을 추진했다.

각종 공공시설이 조성돼 주민 복지증진과 신평·구동항의 외곽 시설을 보강해 항내 정온 확보, 접안시설 신설로 어항 기능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약산 어두항과 소안 미라항, 노화 미라항 등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군 '세방낙조 문화 관광명소' 사업 본격화

총사업비 143억 투입…복합문화공간 조성

진도군이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에 걸쳐 국비 72억원과 도비, 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한다.

진도군은 지산면 세방낙조 일원에 전망타워를 겸한 아트문화타워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 아름다운 다도해, 낙조, 윤슬, 해안선 등을 살려 표현한 세방낙조 문화공원과 함께 바다와 낙조가 이어진 듯한 장관을 통해 진도의 새로운 해안 경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각적인 재미와 흥미를 위해 건물 외부 벽면에 미디어파사드와 내부공간의 전시 체험거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전체를 아우르며 순환되는 파노라마데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해안경관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목포해경, 상반기 응급환자 186명 이송

목포해양경찰서가 상반기 동안 최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바다 위 앰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18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같은 기간 2023년 156명, 2022년 173명, 2021명 163명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과 대비해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목포해경이 이송한 응급환자는 1천105명으로 월평균 약 31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철 극성수기인 7-9월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7-9월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333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는 도서지역이 많이 분포한 신안군과 진도군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해경은 신속 대응이 용이한 연안구조정, 소형정 위주로 이송했다.

목포해경은 신안군, 진도군 소재 보건(지)소와 함께 도서지역 구급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등을 토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공공근로사업 참여 모집

영광군은 3일 "4일부터 1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꽃길 조성 및 관광지 환경정비 등 4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군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영광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경우다. /영광=김동규 기자